신년예언, 일사일난(一事一難)!

(예레미야 36:1~32)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먀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년예언, 일사일난(一事一難)!>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년예언, 일사일난(一事一難)!'
새해가 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구절을 뽑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성경구절이 적힌 종이쪽지가 무작위로 섞여있는데 목사님이 뽑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로 뽑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 말씀이 새해의 좌우명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삶의 표어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해에 받을 은총의 예언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더 정확한 신년예언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100% 정확한 예언입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다니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정확한 예언을 해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은 참 선민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은 바로 '올 한 해는 오직 일사일난(一事一難)의 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일사일난’이란 ‘단 하나의 사건이 있고 단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항상 다사다난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새해도 분명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의 경우에는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고 느낀다면 불신앙의 한 해를 산 것입니다. 새해에도 다사다난하리라 예상된다면 불신앙으로 일관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민에게 주어지는 신년예언은 일사일난의 해가 되어야합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더 추가되거나 단 하나의 어려움이 더 추가되어도 선민 됨을 잃게 될 것이고 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선민이 누구일까요? 언뜻 봐서는 참 선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선민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생을 마치는 순간에 선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참 선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새해는 일사일난의 해가 되리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일사일난은 다사다난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사일난의 ‘일사’는 다사다난의 ‘다사’를 의식한 말로 단 하나의 일을 가리킵니다. ‘일난’도 ‘다난’을 의식한 말로 단 하나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일사일난에서 단 하나의 일이나 단 하나의 어려움이 더 추가되면 그는 선민 됨을 상실함과 아울러 복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다사다난은 실은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내가 마음을 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 년 내내 반복될 일사일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BC.605년의 여호야김 왕 제4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소명을 받을 당시였던 BC.627년의 요시야 왕 시대로부터 22년간 주셨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있었기에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받아 적게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바룩을 시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고관들이 이것을 듣고 왕께 아뢰자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읽게 했는데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전달해 주시려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질은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서 나타납니다. 기준을 갖는 것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지를 잃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레갑 자손의 일화를 통해서 선민들이 복지를 잃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를 잃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지를 잃는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만 바르게 잡을 수 있다면 복지를 잃게 한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유도 극복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태도는 복지를 잃거나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다는 것일까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2차적입니다. 말씀의 근본적인 기능은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사건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로써의 기능이 말씀의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서 읽히고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인격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앞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현실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고 태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실에 맞추어서 전하려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은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최우선의 현실로 체감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고 전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과제를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병법을 익히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작전을 짜는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만약 여기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몰두했다면 마음에서 최우선적인 대상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싸워 이겨야할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전쟁이라는 과제는 선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야 합니다. 그 많은 정복전쟁을 해야만 했던 여호수아의 삶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보다 우선시할 때에 이 전쟁은 더는 여호수아의 과제가 아닌 하나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삶에 다사다난한 과정이 펼쳐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수아는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민이 가져야할 태도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과 사울에 태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가장 우선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론적인 사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결코 하나님이 없다며 부정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서 현실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현실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

냐"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체감하는 순간 골리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은 발견됩니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한가지였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적군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체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적군이 자멸하여 유다는 구원받았습니다. 자멸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의 군대가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은 결코 다사다난해서는 안 됩니다. 선민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느낌으로써, 상황을 하나님이 계신 현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 일 년 동안 해야 될 일사(一事)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일난(一難)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접하는 세상의 대상들이나 상황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로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고 냄새도 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적 현실로 체감하는 나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옮겨가기 위해 발생하는 단 하나의 어려움이 일난(一難)입니다. 정리해보면 일사(一事)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이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현실로 체감하는 마음을 죽이는 어려움이 바로 일난(一難)입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풍랑이라는 상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끼는 동안 마음에서도 풍랑이 최우선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현장에서도 살아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최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과제가 생깁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현실로 체감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주무심으로써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결코 풍랑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현실감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셨던 예수님의 현실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센 풍랑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게 하는 장치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가능

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감으로 느끼는 풍랑을 마음에서도 최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적인 현실로 여기심을 통해 잠을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러한 상태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 단 하나의 어려움인 일난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통이 없는 죽음입니다. 고통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 왕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잘 느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로 체감하는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풍랑만난 배위에서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믿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경우에도 바벨론이라는 위협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에서도 돈 문제가 최우선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돈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니 성도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실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은 현실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실감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현실로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몸으로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최우선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취직 문제, 승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롯해 어떤 문제도 내가 극복하려고 할 때에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믿음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민에게는 일사일난이 있을 뿐입니다. 삶에 문제가 많을 수는 있습니

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최우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사로 한해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사한 한해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몸을 통해 느끼는 세상의 문제들을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이 일사일난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찢고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의 태도를 통해 일사일난의 선민의 태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설령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적 현실로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일사일난이지만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최우선의 현실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던 다사다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현실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나를 장갑삼아 해나가실 것입니다.
다사다산은 불신앙입니다. 오직 일사일난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의 현실로 여겨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을 죽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일사일난의 삶을 반복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일사일난(一事一難)의 해가 되리라!'는 예언대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삶을 통해 2019년을 복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밖에서 보기에는 다사다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오직 일사일난의 해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